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최강의 권력기관은 검찰이다.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물론 영장 청구권마저 독점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임의적인 잣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 권력의 시녀로 지탄을 받은 적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오로지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의 막강한 힘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검찰에 해당하는 조직은 사헌부였는데, 요즘의 검찰처럼 그 권위와 위상이 대단했다고 한다. 이는 사헌부의 또 다른 이름이 '상대' (尙待)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서리 '상' (霜) 자가 들어가서 그 별칭도 들어도 '추상(秋霜)같다'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가.

사헌부의 직무는 '백관(百官)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억울한 일을 풀어 주고 협잡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사헌부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관

즉 모든 관리를 규찰할 수 있다는 규정(경국대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대 표적으로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첫째가 풍문 거핵(風聞擧劾)이다.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고위 관료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 둘째는 불문언근(不問言根)이다. 자기들이 주장한 사실의 근거를 대지 않아도 무방했다.

사헌부 구성원들을 대관(臺官)이라 했는데 이들의 직급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헌병이 일반 장교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벼슬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령 사헌부 관원들이 정색하고 조정에서 서면 모든 관료가 떨고 두려워했다니 말이다. 당대의 권신 한명회도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끝내 파직됐다.

사헌부 예찬한 '상대별곡'

사헌부 외에도 조선시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관으로는 임금을 상대로 직언을 하는 사간원이 있었다. 사간원의 분위기는 자유분방하기 이를 데 없어 심지어 공무 중 술을 마셔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사헌부의 근무시간과 위계질서는 엄격했으니 길을 갈 때도 직급 순서대로 걸었다고 한다. 철저히 상명하복에 충실한 오늘날의 검찰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모양이다.

사헌부 관리들은 자부심도 대단했는데 이를 보여 주는 노래가 있다. 조선 초기 정종 때 사헌원

지낸 권근이 지은 '상대별곡' (尙待別曲)이다. 상대별곡의 노랫말에는 사헌부의 엄숙한 기풍 및 관원들의 기강과 자기과시가 드러난다. 그래서 사헌부 관리들이 희식이 있을 때마다 '사헌부 예찬가'인 상대별곡을 기세 좋게 환창(喧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사헌부도 오늘날의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조선 중종 시절, 정암 조광조는 왕에게 사헌부와 사간원의 전면적 개혁에 관한 상소를 올렸다. 당시 보수 세력인 훈구 파가 연산군을 몰아낸 덕분에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중종은 이들의 권세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허수아비 임금'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훈구 파들에게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다.

이때 마침 정암의 상소가 올라오자 중종은 이를 받아들여 조광조를 제외한 사헌부·사간원 소속 벼슬아치 전원을 해임했다.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이후 중종은 조광조를 전격 투옥하고 사형시켰다. 저 유명한 주조위왕(走肖爲王) 사건이다. 왕이 그쯤해서 개혁을 중단시킨 것은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세력이(그게 어느 쪽이든) 너무 강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하면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의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 모 인사가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던 말이다.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한 이 말에 한양 조씨 문중에서는 즉각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없지는 않다. 먼저 둘 다 검찰(사헌부)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암이 중종의 사랑을 받았듯이 조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운도 떼어 보기 전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사헌부 관리들이 반드시 스스로를 깨끗이 한 후에야 남을 공박했던 사실을 거울로 삼았어야 했다. 본디 탄핵이라는 것이 상대의 목을 취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하는 행위였기에, 누군가를 탄핵하려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해야 했던 사헌부 관리들을 본받았어야 했다. 개혁은 언제나 풍파를 초래하는 매우 힘든 정치적 작업이라는 것을 왜 몰랐던가.

검찰 개혁 누가 걸림돌인가

그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요즘 끝없이 계속되는 추·윤 싸움을 우리는 지겹게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딱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추미애(법무장관)와 윤석열(검찰총장) 둘 중 누가 옳은지 헛갈려 한다. 다만 한 때 여당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둘 다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은 달을 보라는데 두 사람 다 손가락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견월망지

(見月忘指). 지엽 말단에 얽매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나저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판에, 사사건건 맞서는 이들의 '아귀다툼'은 국민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사이 검찰 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는지 강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급기야 엇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까지 내렸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총장의 언행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무를 배제할 정도까지 되는지, 그처럼 '중대 비위' 인지는 아무래도 의혹의 사실 관계를 좀 더 따져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윤 총장 또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찌 됐든 법무장관이 검찰권을 활용해 현직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윤 총장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은 오히려 윤 총장일지도 모른다. '검찰 중립'이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누구보다도 더한 '검찰 지상주의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 훗날 역사는 윤 총장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게 될까?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다만 한 가지, 윤 총장이 권력 심층부에 맞서 끝까지 자기 조직만 지켜낸 인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 일주일째 300명대...수도권 중심 급속 확산

전체 70% 넘어...거리두기로 감염차단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환자는 316.3명"이라고 밝혔다.

1주간 일평균 316.3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발생 확진자 기준으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300명 초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22명으로 전체 일 평균 환자의 70%를 넘게 차지했다. 그 외에는 호남권 29.4명, 경북권 20.1명, 강원권 19.7명,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제주 1명 등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호남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 중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호남권, 강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 추이를



25일 오전 나주시 빛가람동 한 초등학교 입구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가져올 광범위한 조치가 실시되는 만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척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3차) 유행은 지난해 위기와 달리 선제적 조치를 취할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거리두기 격상 여부의 경

우, 이미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된 지역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반장은 또 "(집단 감염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등을 통해 확산한 다음 추가 전파돼 어린이집이나 사우나 같은 다양한 곳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거리두기를 열심히 함께 실천해 다음 주 정도부터는 확산세가 꺾였으면 한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화순 운주사·해남 대흥사·순천 송광사...

유네스코·CNN 인정 전남 13개 아름다운 사찰

전남도가 유네스코와 CNN이 인정한 대흥사, 선암사, 사상암 등 전남도내 13개 사찰을 곁어가는 가을에 가볼만한 장소로 소개했다.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해남 대흥사와 순천 선암사는 1500여 년 이상을 이어온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해남 두륜산에 자리 잡은 대흥사는 절의 입구에 상사화와 편백나무가 뿔뿔하고 물소리길, 동백숲길도 오감만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서산대사의 의발(옷과 밥그릇)과 일지암 등 다성 초의선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으며, 절을 감싼 두륜산 산행길도 오붓하게 걷기 좋다. 순천 조계산에 자리한 선암사는 태고총림으로써 승려들이 수행하는 종합 수도도량이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진 건축물의 곡선미와 승선교의 아름다움, 자연친화적 화장실 '뒹간' 등 오래된 건축물이 즐비하다. 입구의 긴 산책로와 주변의 넓은 차밭, 천연기념물 선암대, 울긋불긋 단풍까지, 가을 명상과 힐링 여행지로 최적이다.

영초 CNN이 발표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개에 포함된 전남의 12개 사찰도 가볼만하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선암사를 비롯 ▲여수 향일암 ▲순천 송광사 ▲담양 보리암 ▲곡성

태안사 ▲구례 천은사·화엄사·사상암·연곡사 ▲화순 운주사·쌍봉사 ▲해남 대흥사 등으로 이들 사찰은 자주 들러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명사찰이다.

특히 구례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답게 화엄사, 사상암 등 4개소가 아름다운 사찰로 선정됐다. 이중 사상암은 섬진강 자락의 오산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해질 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유리광천이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나고, 아래로는 섬진강 줄기와 멀리 남도의 포근한 산자락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화엄사는 지리산 권에서 가장 큰 사찰로 국보인 각황전을 중심으로 절묘하게 배치된 가람 배치기 인상적이다. 국보 4점과 보물 8점 등 20여 점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엄하고 웅장한 각황전 앞에는 국보로 지정된 국내에서 가장 큰 석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이색적이다.

이밖에 내장산 남쪽 백암산에 단풍명소인 백암사도 있다. 계곡물에 비친 애기단풍과 가을 풍경은 아름다운 선경에 들어선 느낌을 준다. 주차장에서 백암사로 들어가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 고

남화토건주식회사 창업자 유당 최상옥 명예회장께서 2020년 11월 25일 새벽에 노환으로 별세(향년 93세) 하셨습니다. 가족장으로 모시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26일

빈 소	광주광역시 남문장례식장 2층
발인일시	2020년 11월 27일 오전 8시
영결식장	광주광역시 남문장례식장 2층
장 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선영하

호 상 고 귀 남 (전 국회의원)

이윤수 이지선

외 손 녀

조진우 조성우 조영우 송원준 송정은

손 자

홍석 현석 우석 원석 민석

사 위

조재식 송주석 이종오

자 부

박미경 최희 김남수

여 료

영륜 윤정 영진

자 훈

용훈 철훈

남화토건주식회사 임직원 애
 남화개발주식회사 임직원 애
 KCTV광주방송 임직원 애
 센트럴저축은행 임직원 애
 무안컨트리클럽 임직원 애
 한국씨엔티주식회사 임직원 애
 학교법인 유안학원 광주서석중고등학교 임직원 애
 재단법인 유안문화재단 임직원 애
 재단법인 유안문화재단 임직원 애

※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장례의식은 가족친지들 위주로 차분히 치를 예정이며, 조의금과 조화는 정액에 한하여 받으시지 않습니다.

※ 연락처 : 남화토건총무부(062) 520-1051, 1053
 빈소 관주 남화장례식장(062) 675-5000